

오프의 마법사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회오리바람이 몰려왔어요.

“도로시, 어서 피해!”

엠 아주머니는 하얗게 질려 마루 밑 대피소로 내려갔어요.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를 안고 엠 아주머니 뒤를 따랐어요.

그런데 토토가 도로시 품에서 뛰쳐나와 침대 밑으로
숨어 버렸어요.

“안 돼, 토토. 어서 나와. 어서!”

바로 그때였어요. 집이 빙그르르 돌더니 둥실둥실 떠올랐어요.

작은 집은 회오리바람에 실려 멀리멀리 날아갔어요.



쿵! 마침내 회오리바람이 멈추고 집이 땅에 떨어졌어요.
도로시가 집 밖으로 나오자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나는 북쪽 마녀예요. 집이 떨어지면서 동쪽 마녀가 깔렸어요.
못된 동쪽 마녀를 물리쳐 줘서 고마워요.”
도로시가 북쪽 마녀에게 물었어요.
“마녀라면 혹시 엠 아주머니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아세요?”
“에메랄드 시에 사는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 부탁해 보세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구두를 벗겨 도로시에게 건넸어요.



도로시는 은구두를 신고
북쪽 마녀가 알려 준 노란 길을 따라갔어요.
옥수수밭을 지나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나 좀 도와줄래? 내려가고 싶은데 발이 땅에 닿질 않아.”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 주고 나서 말했어요.
“나는 마법사 오즈를 만나러 에메랄드 시에 가는 길이야.”
“마법사라면 내 머리에 뇌를 넣어 줄 수 있을까?
지금은 밀짚만 들어 있어서 아는 게 없거든.”
“그럼 같이 가자.”
도로시와 허수아비는 나란히 길을 나섰어요.



도로시는 친구들과 함께 남쪽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가 신은 은구두는 바라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다 준단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남쪽 마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랬다면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사자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도로시의 말에 모두들 눈물을 흘렸어요.

도로시는 남쪽 마녀가 알려 준 대로

구두 뒤꿈치를 세 번 부딪치며 외쳤어요.

“집으로! 그리운 집으로 가자!”



도로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풀밭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은구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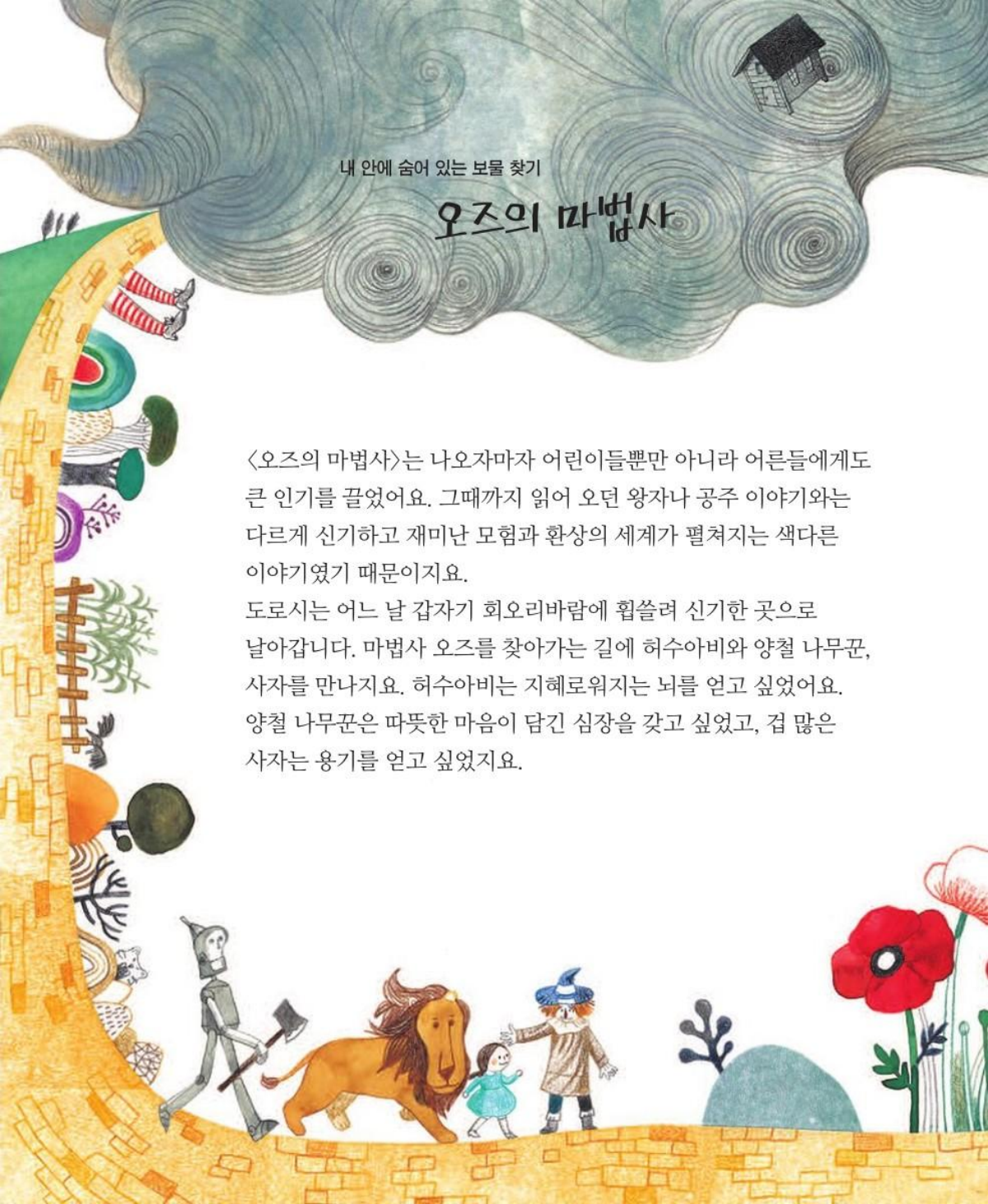
“오, 세상에, 도로시! 우리 아가!”

엠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저 왔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도로시는 엠 아주머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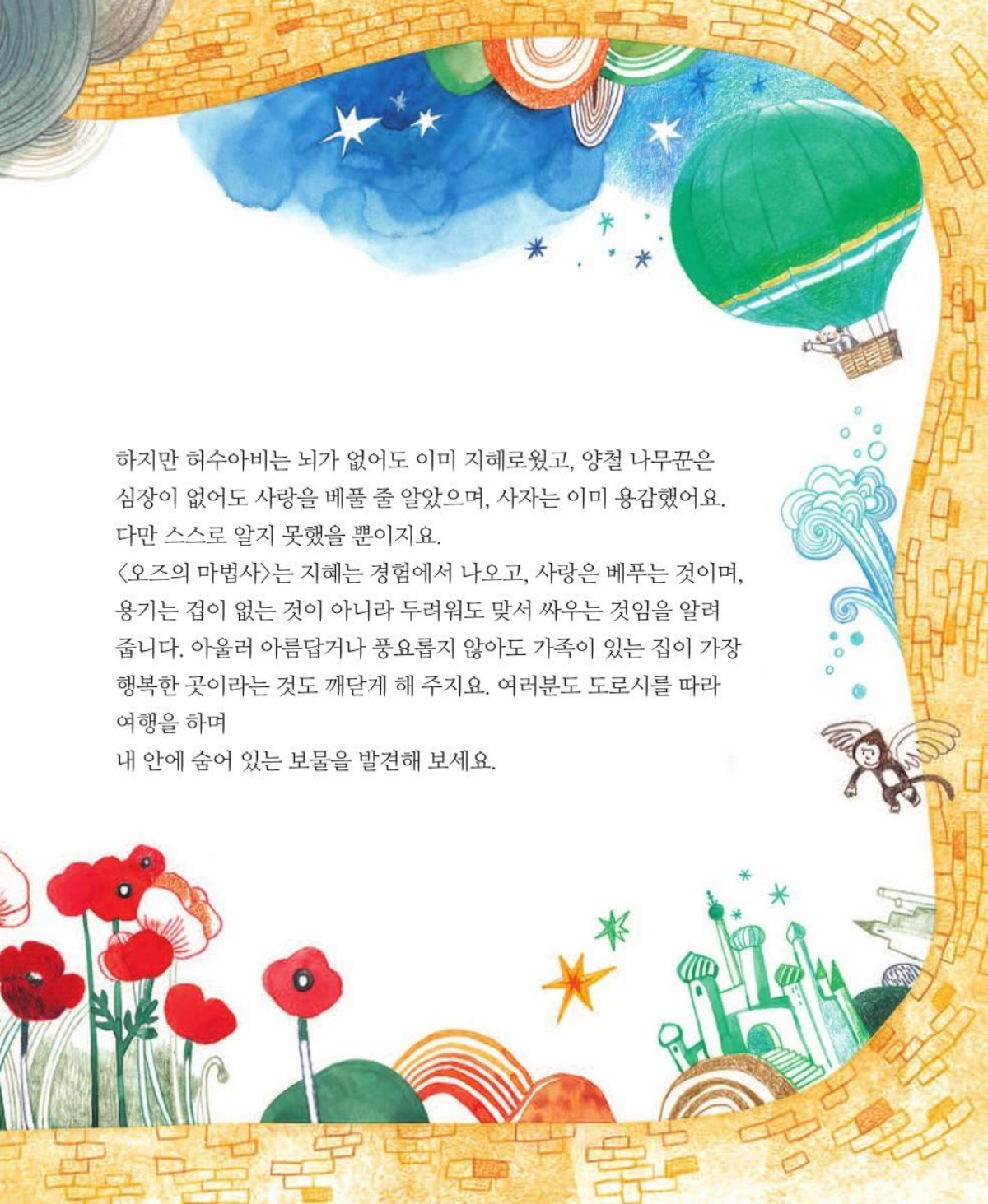


내 안에 숨어 있는 보물 찾기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는 나오자마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까지 읽어 오던 왕자나 공주 이야기와는 다르게 신기하고 재미난 모험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색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도로시는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신기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마법사 오즈를 찾아가는 길에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사자를 만나지요. 허수아비는 지혜로워지는 뇌를 얻고 싶었어요. 양철 나무꾼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심장을 갖고 싶었고, 겁 많은 사자는 용기를 얻고 싶었지요.



하지만 허수아비는 뇌가 없어도 이미 지혜로웠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어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았으며, 사자는 이미 용감했어요.
다만 스스로 알지 못했을 뿐이지요.

〈오즈의 마법사〉는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며,
용기는 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맞서 싸우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아울러 아름답거나 풍요롭지 않아도 가족이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 주지요. 여러분도 도로시를 따라
여행을 하며
내 안에 숨어 있는 보물을 발견해 보세요.



요정, 인어, 마법사, 요괴 같은 신비한 존재와
그들이 살아가는 환상적인 세계 등
어린이에게 잠재된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 줄 놀라운 이야기

